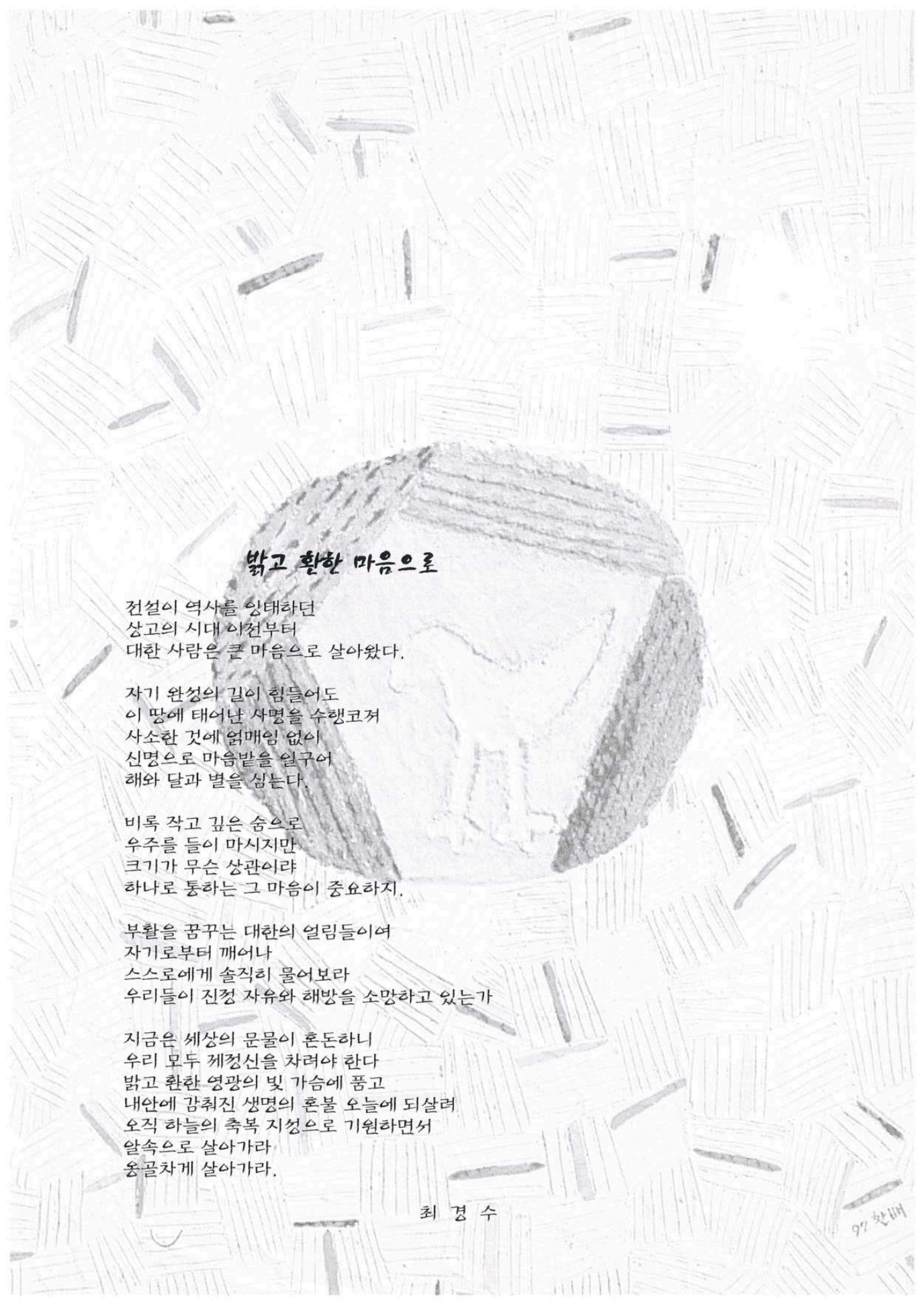


1997년 통권 제5호
전 북 회 화 회 발 행



밝고 환한 마음으로

전설이 역사를 잉태하던
상고의 시대 이전부터
대한 사람은 큰 마음으로 살아왔다.

자기 완성의 길이 힘들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수행코져
사소한 것에 얽매임 없이
신명으로 마음밭을 일구어
해와 달과 별을 심는다.

비록 작고 깊은 숨으로
우주를 들이 마시지만
크기가 무슨 상관이랴
하나로 통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부활을 꿈꾸는 대한의 얼림들이여
자기로부터 깨어나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라
우리들이 진정 자유와 해방을 소망하고 있는가

지금은 세상의 문물이 혼돈하니
우리 모두 게껑신을 차려야 한다
밝고 환한 영광의 빛 가슴에 품고
내안에 감춰진 생명의 혼불 오늘에 되살려
오직 하늘의 축복 지성으로 기원하면서
알속으로 살아가라
옹골차게 살아가라.

최 경 수

전북회화

효봉 여태명
* 개인전 4회
*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
*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 세계서예 비엔날레 집행위원
* 현, 원광대 서예과 조교수
* 주소 : 전북 정읍시 정우면 희룡리 108-1
* 전화 : 학교연구실 (0653) 50-6377, 850-6377
효자동연구실 (0652) 227-9940

표지작가



안 순 금

명제
生-외출/수묵담채/
93×125/1997

개인전
1997 얼화랑
단체전
1989~1997 전북 한국화회전
1990~1991 위도변화전
1993~1995 전북 회화회전
1989 우리가 찾아야 할 에너지전
1990 한·일 현대 미술교류전
1991 21세기를 향한 조율전
1992 교동의 표정전
1993 모악산을 찾아서
1996 봄과 바람과 잔잔한 외출
1997 '97 전북 현대미술의 단면전

차 례

전북회화회 발자취		2
이땅의 젊은 작가들에게	-박민평-	3
전시리뷰 / 풍경으로 본 회화의 본성	-안순금-	4
수묵으로 빚어내는 인간주의의 언어	-문 순-	5
흑백의 네거티브에 녹아 있는 인간문제	-고재명-	7
문화초대석 / 큰 마음의 예술	-최경수-	8
한국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철량-	10
전북 회화회전 / '97 정기전		12
작업노트/새로태어난 기분…	-고재명-	13
늘 그분과 동행하며	-문 순-	14
아중리 소묘	-방정엽-	15
강물처럼 깊고	-서진숙-	16
나는 그런 아침을 좋아한다	-안순금-	17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	-엄기석-	18
은근하고 소박한 아름다움	-이승훈-	19
날수없는 몸짓은	-이우정-	20
옛날에는	-이철규-	21
자연으로 부터	-이환배-	22
일상에서의 탈출은…	-정미현-	23
기행문 / 정미현의 유럽배낭 여행기	-정미현-	24
장승 찾아가는 길에	-이우정-	26
미술탐방 / 4+7인전을 관람하고	-박은정-	27
광주 비엔날레를 찾아서	-이승훈-	29
전북의 화랑가 안내		31
전북회화회 회원 주소록 및 편집후기		32

전북회화

**전북 회화회는 전북 지역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현재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및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1990. 3.13
전북회화회 구성-고재명, 김자경, 성민홍, 이영현
유선영, 이철규, 이철량, 이희춘, 정미현
1990. 5.31~6.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0. 6.21
신입회원 가입-박인현, 조돈구
1990.12.29
신입회원 가입-김경운, 김현경, 문 순, 지민수
최전숙
1991. 1.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F.B.Feildman저, 김춘일 역
사회: 이철량
발제: 지민수, 김현경, 문 순, 고재명
1991.12.14
정기총회:총무-이영현
신입회원 가입-김경희, 박양수, 안순금, 조현동
1992. 6.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10.21
정기모임-총무 고재명 선출
1992.12.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2.12
회원탈퇴-김경운, 박양수, 박인현, 성민홍, 이영현
이철량, 이희춘, 조돈구
1993. 3.
신입회원 가입-방정엽, 임소형, 전양기, 정문배
조양현
1993. 5.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6.5
신입회원 가입-이철량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 군산 개야도
1993. 9.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12.
회원탈퇴-김경희
1994. 1.
신입회원 가입-모용수, 양현식, 황미경, 이환배
1994. 2.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 휴양림)
1994. 6.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12.14~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
예루갤러리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임원선출: 회장-이철규, 총무-이환배
신입회원:안동선, 김현수, 안 윤
1995. 3.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 (전북예술회관)
1995. 3.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 (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12.22
파출소 그림 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회원탈퇴:유선영, 최전숙, 안동선, 양현식, 김현수
모용수, 정문배, 조양현, 김자경, 전양기
1996. 1.25
정기모임
임원선출:회장-이철량, 총무-이환배
회화지 편집장-황미경
1996. 6.28~7.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 정기전
1996.12.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12.12
정기총회
회원탈퇴:안 윤, 지민수, 임소형
1997. 2.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신입회원 : 이승훈, 이우정
1997. 4.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 : 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 : 이철량 교수님
1997. 6.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28
전북 회화회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28
전북 회화회전
제5회 전북회화지 발행
1994. 12
정기총회 및 결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림속에 그 민족의 혼이 담겨야 —



박 민 평

미술 인구가 중앙 집중에서 각 지역에까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공모전, 그룹전, 개인전, 화랑기획전, 대학졸업전, 해외교류전등 많은 전시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미술의 앞날에 무척 고무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바꾸어 말하면 오천년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십여년전 한국미술 오천년전이라는 명칭으로 해외 각국을 순회하면서 우리의 문화재를 공개한 일이 있었다. 호기찬 눈으로 우리를 재인식하고 동양문화에 큰 관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과 다른 체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오천년 역사에서 우리 현대회화의 현주소를 찾아보면 우리그림을 동양화라고 불리울 때 화가들은 중국의 화첩등을 의지하며 답습해 왔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조선시대 때부터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한 한국화라 칭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화의 원조라 불리우는 정선, 단원등이 우리나라의 풍경, 풍속등 우리 환경과 정서에 맞는 그림을 그렸으므로 '한국화'라는 이름으로 새싹이 텄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서양화라고 하는 수채화나 유화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삼십육년간 지배하고 통치할 당시 서양화를 우리나라에 건네주는 교량이 되었고 우리나라 화가 고희동씨가 일본에 유학 서양의 인상주의 화풍을 도입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백년전이니 이 시점이 우리나라 서양화의 첫 걸음인 셈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짧은 우리 회화의 역사에도 반만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갖는 우리민족의 정기와 감성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 회화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대열에서 우리의 국적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우리 민족의 사상과 얼이 한국적 감성으로 흠뻑 담겨야 세계속에서 그 빛을 발산한다는 말이 아닐까?

그림에는 그 민족의 혼과 체취가 감성과 모양과 색깔로 믹스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여되면 국적없는 그림으로 영원한 미아가 될 것이다.

금년 10월호 어느 미술 월간지에 미술평론가 오세권씨가 모 작가에 대해 쓴 논평을 읽고 이에 공감하며 그의 예기를 서두만 요약해 본다.

「예술의 변화는 사회 변화에 발걸음을 같이 한다. 여기에는 '시대성'이란 확고한 명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곧 예술이란 그 시대에 나타나는 시대성을 예술적 시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술품은 그 시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다. 미술 문화에 있어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형적 측면, 미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시대가 무엇을 원하였는가? 하는 관점에서 미술문화의 주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미술품의 감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술품이 제작된 그 시대의 사회의 시대성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내었는가 하는 점을 중요시 하면서 작품을 감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작가는 자신의 감성과 재주에만 빠져 그 시대 사회 인식과는 전혀 다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가령 20세기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왕조시대에나 나타내어야 할 작품을 제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에게 있어서는 시대변화와 현실감각이 뛰어나야 하겠으며 그 시대변화에 따른 생각의 전환은 중요한 것이다. 기존의 고답적인 생각에만 파묻혀 있지않고 항상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조형 실험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작가들이 지녀야 할 작가정신인 것이다.

결국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항상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 작가의 마음가짐인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느 한계점에 머무르지 말고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형실험을 통해 우리회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감성은 유행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환경과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정리해 보자면 구상적이든 비구상적이든 실험적 표현은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수 있으며 그런 부단한 노력에서 작가로서의 기틀을 탄탄하게 하고 민족사관적 주체의식이 뚜렷한 한국적 체온이 감도는 작품으로 승화시켜야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우리의 기상은 드높여질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전북지역 젊은 화가들이 향토적이고 한국적인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길 기대한다.

전시리뷰

풍경으로 본 회화의 본성

1997.10.23▶10.29
얼화랑

안 순 금 전



生-예감 / 수묵담채 / 89×65 / 1997

안순금의 작품들 속에서 우리는 미묘하게 서로 얽혀있는 여러 형상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들은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부호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또한 알 수 없는 복잡한 추상적 형태로 나타나 있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또한 어느곳에서는 우리와 친근하게 만나게 되는 새나 꽃이나 혹은 산이나 집들이 보이기도 한다. 어떻든 이러한 복잡한 형상들이 때로는 구체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나타나면서 서로 얽히고 설켜 그의 화면은 매우 흥미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질서를 갖는 회화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화면들은 주로 수묵을 통해 구조를 형성시키지만 때로는 높은 채도를 갖는 색상을 과감하게 도입하기도 하고 혹은 혼합색체를 구사하면서 수묵에 파격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안순금의 작품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잡하고 야릇한 형상들의 다양한 집합들과 함께 먹과 색채의 대담한 구사로 인하여 더욱 미묘한 뉘앙스를 갖게 된다.

안순금의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이렇듯 난해한 형상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의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표제를 달고 있는 생(生)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특히 생이라는 주제와 함께 붙여진 동심, 혹은 예감 등과 같은 용어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그의 그림들은 언뜻 보기에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형태들이 얽혀 있는 것이지만 또한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나의 풍경화로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안순금의 작품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객관적 정황들을 그 자신의 독특한 감성의 체계속에서 새로이 재생시켜 보여주는 현대적 풍경화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화가들은 대부분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들을 그린다. 물론 어떤 화가들은 그들의 경험할 수 없었던 수천년 전의 과거를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미래의 어느 시대를 바라보기도 한다.그러나 그 사고의 출발은 대부분 그의 경험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의 동양화들의 산수화는 주변의 실제적 풍경을 통해 작가 개인을 넘어서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꿈꾸어 왔던 어떤 영원의 세계를 담아냈었다. 안순금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동양화가 추구했던 전통적인 생각을 읽어 낼 수 있다. 물론 안순금의 그림들은 이전의 풍경, 산수화가들의 그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낼 수 있는 나무와 산, 집 등등의 물상들과는 다르다. 말하자면 하나 하나의 물상들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와 집, 풀, 꽃 등등이 뒤섞여 딱히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얽혀 있다. 안순금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동양화의 전통 정신을 이해해 가고 있다.

안순금의 화면은 역시 수묵이 기초가 된다. 그의 수묵의 활용을 통해서도 그가 수묵의 세계를 나름의 독자적 형식으로 천착해 가는 면모를 보여준다. 수묵은 역시 필과 먹으로 요약된다. 말하자면 필묵의 원활한 구사는 수묵화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안순금은 화면에 등장하는 물상들을 가늘고 날카로운 선으로 결정한다. 그의 이러한 선은 모필만이 가질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누구나 상식처럼 알고 있듯이 모필은 선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다시 말하면 모필보다 더 좋은 선을 낼 수 있는 도구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이해에 도달해 있다. 그의 선은 모필만이 낼 수 있는 매우 날카로운 선을 구사한다. 이것은 자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또한 대단히 동양화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묘들을 막막한 허공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발묵을 통해 이루어 낸다. 이렇게 해서 그의 작업은 충분히 형성되는 것이지만 화면의 뉘앙스를 위해 색채를 올려 낸다.

오늘날 동양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동양화가들은 많지 않다. 또한 현대적인 건물이나 현대 풍경들을 그리는 것이 현대적인 산수 풍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안순금의 경우는 현대적인 대상들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의 주변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이들 대상들을 빌미로 하여 어떤 본질의 세계를 더듬어 내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전통 회화에 다가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전통에 대한 근원적 사고 혹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확인, 이것은 우리 전통 화가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현대적 태도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굳이 전통 화가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동•서를 막론하고 회화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순금의 작품에 대한 전통 회화로서의 현대적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대학교 교수, 한국화가 **이 철 량**



'97 예수의 흔적-요한복음14,15,57×41cm,색연필과 수묵

수묵으로 빚어내는 인간주의의 언어

문 순 展

1997.11.5(수)▶11.11(화) 갤러리 서호
1998.2.20(금)▶ 3. 1(일) 얼 화 랑

인물화는 동·서양 미술사에서 큰 장르를 세우며 발전되어 왔다. 서양의 인물화가 풍경이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인물을 주제화하는 경향인 것이 대부분인 것에 비해 동양의 인물화는 인물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대종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인물을 그리는 것을 '사진(寫眞)한다'고 표현했다. 자연풍경이나 물상을 그리는 것을 '사생(寫生)'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준하는 뜻이다.

거기에는 진짜, 즉 인간의 본 모습을 그대로 그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과학이 발달하여 카메라로 실체 그대로를 나타나게 하는 기술을 '사진'이라고 하지만 예전엔 사람의 모습을 사실대로 똑같이 그리는 것을 '사진'이라 한 것이다. 동양의 인물화는 초상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사진'을 만들어 남기고 싶은 소망에 의해 발전돼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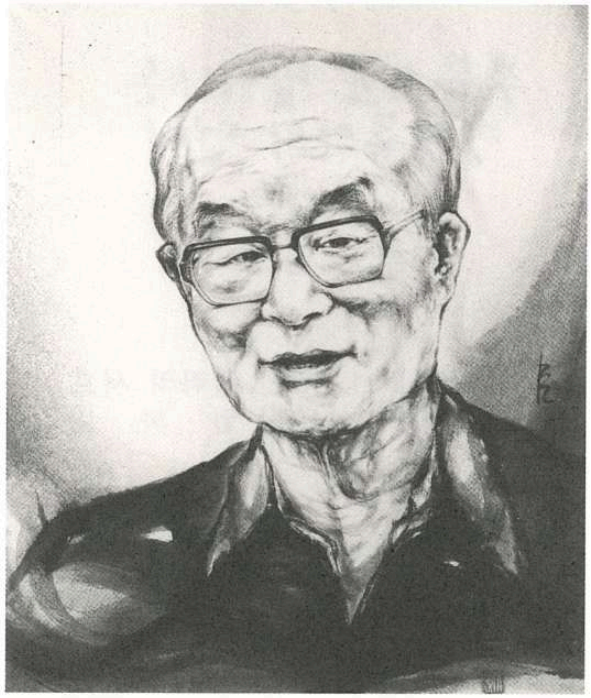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인물화도 서양화 화가들은 서구적 기법에 의존하여 그 방식을 답습했지만 동양화가들은 캔버스가 아닌 화선지나 장지, 명주같은 천에 오일이 아닌 묵필로 그림으로써 상이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실주의적 정밀묘사법에서 벗어나 인물의 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인물을 통한 어떤 사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비롯되었고, 근래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은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보겠다.

인물화를 가지고 두번째의 개인전을 갖는 여성화가 '문 순'의 경우도 그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 출품하는 그의 작업들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던 첫 개인전과는 달리 '예수'라는 주제 대상을 설정하여 이루어졌다. 물론 6·25동란 직후 부산의 빈민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첫 빈민 무료병원을 개설한 후(국내 최초로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활발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한 '고 장기려박사'나 아프리카의 난민촌 아이들, 그리고 '안중근의사'의 손바닥 등을 그린 것도 몇 점 있지만 작업의 주 테마는 '예수'의 생애가 스며진 얼굴이나 모습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문 순'의 작업에 대한 몇가지 의미와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챤이다. 그의 신앙은 오늘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의 자가당착적이며 허울 뿐인 것이 아닌, '예수정신'의 본질을 제대로 소화하고 그 위대하고 긍휼한 생의 본령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순결한 신앙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인생을 사는 모습이나 일상의 행동을 보면 그런 신앙인이라는 확신이 든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맹목으로 신앙하는 신이라기 보다 제 영성의 일부이자 가장 믿음직스러운 의지자이자 대화의 상대자이고 환난한 삶의 구원자인 것이다.

그런 예수를 그는 그림으로 표현해내고자 한다. 신의 위엄과 품격을 갖춘 절대자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고, 가장 큰 형벌의 고초를 감내하고 간 예수의 큰 사랑과 고뇌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러면서도 무한한 사랑이 깃든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그는 신의 영성(靈性)과 인간의 개념을 교합한 가장 이상적인 표상을 연출해내고 싶은지 모른다.

예수 이외에 그가 소재로 한 '장기려박사' 역시 예수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예수의 정신, 사상, 사랑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며 다만 그 생을 성경대로 살아 온 삶인 것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린 난민들 역시 빈



'96 장기려-나의 세계는 내가 사랑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110×75cm,한지에 수묵

곤에 주린 얼굴이지만 천의무봉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어린아이들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설 수 없다는 말이 성경에 있듯이 어린이의 얼굴은 순수와 순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문 순 '의 조형의도는 자명하다. 인간주의, 즉 휴머니즘이 그의 조형의 테마이다. 거친 황야와도 같은 세상을 따뜻하게 안온시킬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연민의 사랑임을 그는 말하고자 한다. 예수에 생애를 통하여 그의 숭고한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의 온갖 표정은 곧 우리 인간의 모습이자, 인간이 표본으로 자녀야 할 가장 이상적인 품성인 것이다. 그가 그림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인 것이다. 예수의 영성과 인간의 영성의 일체감,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와의 일체감을 구현해내는 것이 문 순 조형의 큰 줄기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런 표현작업들은 수묵조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미술사에 등장하는 인물화들이 진채 세필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그의 작업은 수묵이라는 동양화의 본질적인 매재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론 수묵인물화는 그뿐 아니라 근래 몇 몇 작가들에 의해 보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문 순의 인물화는 수묵이 갖는 담담하면서도 심유한 느낌을 최대로 활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의도의 효과를 잘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묵 자체가 지닌 여백의 미와 여운의 감흥에 과감한 생략법을 도입하여 사실성에 바탕을 둔 모티브의 극대화는 이 작가의 장기이기도 하다. 물론 배면에 성경구절을 쓴 글씨들이 있지만 그것은 화면의 중추적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중요시 하는 것은 예수의 표정이다. 거기엔 인생의 모든 표정들이 다 들어있다. 고뇌, 슬픔, 분노,절규,처절,절망,고통 등 인간이 지니고 있는 온갖 표정이 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표정 속에 갈무리되어 있는 것은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다. 그것이 '문순'이 지향하는 예수 인물화의 하일라이트이다.

그러기에 '문순'이 지향하는 예수 인물상은 단순한 성화가 아니다. 물론 일반론적인 인물화는 더욱 아니다. 물론 그는 회화 양식, 특히 수묵과 필선의 묘를 위주로 하는 동양화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조형어법은 그가 창안해 낸 '사진'과 '이미지'와 '모티브'의 직조된 조합의 의해 제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인물화의 개념을 얘기할 때, 선적(線的)이냐 면적(面的)이냐로 분류되는데 '문순'의 경우는 양자를 다 공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면을 통하여 정적인 효과를 얻고 선을 통해서는 동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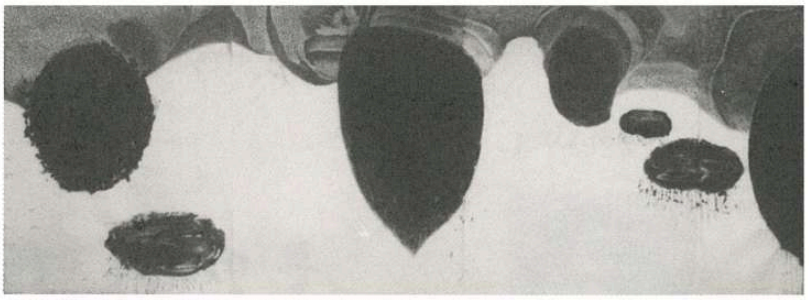
그는 먹을 감정의 이상화, 화면장식의 효능성을 제고시킬 줄 아는 작가이기도 하다. 먹은 곧 그의 조형의 이론적 출발이자 결론이기도 하다. 때로 담채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농묵과 담묵의 적절한 배합의 화면 전개가 이 작가의 취향이자 장기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인물화는 고전의 양식과 현대양식의 이분법에 얽매어 있지 않다. 이 두가지 개념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소화한 때문인지 그의 화면은 자연스럽게 뚜렷한 인물회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작가는 예수를 비롯한 인물을 소재로 작업을 할 것 같다. 또한 수묵을 근간으로 하는 조형을 보여줄 것으로 여겨진다. 굳이 이 작가에게 주문할 것이 있다면 대상의 폭을 더 넓혔으면 하는 것과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의 현장, 또 오늘 우리들 삶의 모습들을 조형의 주제로 채택했으면 하는 점이다. 이런 주문은 그만큼 이 작가의 독특한 조형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역량이 미덥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묵은 동양정신의 한 상징이랄 수 있고 그래서 향기로운 느낌과 세한(歲寒)의 아취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류석우/시인 · 월간 미술시대 주간

전시리뷰

흑백의 네거티브에 녹아 있는 인간문제



무제 / 한지에 수묵 / 600×210 / 1997

고 재 명 전

1997.1.24~2.2 기린갤러리

작가 고재명은 회화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 내고자 했을까? 이 점이 우선 궁금해진다. 물론 그 해답을 작가의 답변에서 쉽게 유추해 낼 수도 있으나, 작품속에 내재된 암시적인 징후를 발견해 보기로 하자. 그는 나름의 독자성으로 〈인간문제〉라는 일관된 주제를 진지하게 파들어가는 작가로 인식된다. 그가 다루는 인간문제는 인간을 단순한 소재로 놓기보다는 형태의 해체와 변형 따위를 한층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히 폭력적, 파괴적이라 할 만큼 보이는 이로 하여금 비정상적이거나 소름끼치는 감정을 느끼게끔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이 양파껍질을 한 꺼풀씩 탈골된 인물, 이목구비가 마모된 끔찍한 몰골로 마치 무덤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미이라 또는 죽음의 마스크를 가진 유령들과도 같다. 이처럼 괴기하면서도 앙상한 뼈대만 남은 인체의 표현 방식은 초현실주의, 혹은 신즉물주의에 속하는 벡신스키(Beksinski)작품과 유사한 독특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여러명이 뒤엉켜 있는 인물군상은 일본의 마루키 부부가 공동제작한(원폭도)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그가 표현하고 있는 〈인간문제〉는 죽음과 고통, 두려움, 절망, 운명이라는 한계상황 앞에 내던져진 실존철학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마도 절망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기본적인 권리도 빼앗긴 현실의 비가시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펼쳐보이면서 우리의 잠재된 의식세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듯이 보인다. 작가는 퇴화하고 뒤틀린 인간 몰골의 형상화 작업을 통하여 창조적 해체형식으로 총체주의적 현실을 마음껏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상상세계는 인간의 극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생의 끈덕진 의지와 절규하는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인간의 한과 아픔은 삶과의 싸움을 배제할 수 없는 운명지워진 인간의 실체인 것이다. 〈인간문제〉그림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러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드러내보이는 아픔, 강조하지 않으나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파괴된 인간의 실체가 범상하게 함축되어 있음을 본다. 그러면서도 그의 작품 배면에 깔린 기본적인 방식은 현실과 몽환의 중간지점에서 무엇인가 항상 꼬여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작품은 크기나 내용면에서 보는 이가 중압감이 들 정도로 거의 100호 크기가 넘는 대작들을 서로 연결지어 펼쳐보이고 있다. 기법적인 면에서는 줄곧 해왔던 작업과 마찬가지로 수묵의 번짐과 마블링 효과를 적절하게 구사해 긴장감과 생성의 이미지가 담겨있다. 마블링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면과 마치, 인간의 실핏줄을 해부하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선들의 섬세한 움직임의 서로 면들이 겹겹이 누벼지면서 힘의 불균형을 창출한다. 이 불균형의 형태들이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 긴장감이 이번 작업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전의 작품들은 대개가 인간의 절규와 몸부림 속에서 실존의식을 반영해 보고자 했다면, 이번 작품의 특징은 자연이 갖는 또는 땅속에 용트림하고 있는 뿌리나 고목에서 생명력을 끄집어 내면서 독특한 대응력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마치 태초에 우주가 생성되는 빅뱅의 순간을 흑백의 네거티브 필름을 통해 보듯 이번 작업들은 매체의 물적 체험을 정신적 체험이나 생성의 원초적 체험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존엄과 초월적인 상태에 대한 동경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려는 체험과 깨달음이 스며있는 대작으로 구성된 연작 시리즈는 우주의 이치를 체득해내고자 하며 근본에 순응해 초월에의 의지를 세우고자 하는 정신적 승화의 결정체들이다.

단순한 원근법이나 전통적인 재현기법에 의존하여 형상의 외양을 담아내려는 의도가 아닌, 기하학적 구조에 의한 공간분할은 시각적 주목성을 높이고 화면속에 보다 은밀한 개인적 사색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은 세계와 자연에 대한 그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모든 물상이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고자 함이다.

이와 동시에, 그가 시각적 형태의 해체를 통해 심리적 자극을 유발시키고 마침내 얻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도의 산업사회의 삶속에서 부품화되고 지쳐가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대문명의 이면에 감추어진 부조리한 인간에 대한 자기 성찰을 인식과 체험에 호소하려는 강렬한 외침을 담고자 함이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사회 삶속에서 박제화되고 지쳐가는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을 조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과 자연 생성의 원초적 체험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소중하고, 시의적절하게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어떻게 사회 역사적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추구하는 인간문제와 생성의 원초적 체험 및 문명비판 의식이 움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숙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97.1 김선태: 미술평론가



큰 마음의 예술

한마음 병원 원장 **최경수**

우주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의 극치다.

아름다움은 존재의 속성이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지성의 표상이다.

아름은 본질이요 다움은 됨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알음(씨알)에 도달함이요, 본질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의 감성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알음(앎)은 지성과 감성을 통한 영적 깨달음이요, 이런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다.

1 예술의 바탕은 마음

진실된 마음에서 진실된 행위가 나오 듯 마음의 여유가 있을때 예술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진실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술의 바탕은 마음이다.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열린 만큼 볼 수 있으며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은 존재의 본질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다.

몇 년 전 어느화가 한 분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 연륜도 쌓여가니까 자신의 그림도 바뀌어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하듯 말하는 그분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공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만큼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내 마음도 커져가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예술품을 감상 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창조를 표현한 예술가의 진솔한 마음을 느끼면서 또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내 마음의 크기를 바라볼 수 있어서 스스로 든든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2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

문화는 우리가 살아있고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배경으로 독특한 기운을 나타낸다. 나는 우리 조상님들의 문화적 유산을 볼 때 마다 문화적 자긍심을 충분히 가질만 하다고 감탄하게 된다. 문화란 차별이 아닌 개성의 차이라서 우열을 가리거나 비교할 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는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에 견주어 결코 손색이 없다.

나는 조상님의 유물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 [illegible]에서 많이 뒤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세월의 깊이와 영적인 기운을 남고 있어서 내가 애정의 눈길로 바라 볼 때마다 포근하고 묵묵한 어머님의 가슴으로 나를 감싸주곤 한다.

우리의 문화는 생활이요 역사이며, 민족의 혼(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기에 아득함과 깊이가 있으며 겉만 화려한 작품들이 따를 수 없는 우수한 기품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어서 새로운 생명의 의지를 북돋아 주게 된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의 정문에는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한약 절구통의 밑바닥에는 커다란 거북을 조각해 놓고 절구통의 사면에는 두 개의 연꽃과 두 개의 거북을 조각해 놓았다. 사실 편리성만 추구하고 있는 현대 사회 같으면 약을 빻는 빈 공간만 있으면 될텐데 그보다 몇십 배의 공을 들여 하나의 예술품으로 승화시켜 놓은 조상님들의 지혜를 보면서, 나는 결과보다는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깨달음을 주시는 조상님의 가르침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대한 사람이라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우리들 자신만이 가지고 고유한 맛과 멋의 예술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향해 창조의 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

생명의 작품속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비한 기운과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대문에 우리는 민족예술품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된다.

우리의 문화속에 담겨있는 신비와 깊이를 느끼기 위해서 또 문화적 생활인 생활 문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민족문화에 대한 체험과 애정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우리 삶의 공간에 민속문화 예술품을 한점이라도 곁에 두고 그 깊이와 향기를 즐길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키워나가야 한다.

3 대한 사람은 큰 마음으로 산다.

예술이란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을 깨우는 것이다. 삶의 맛과 멋은 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족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특성을 지닌 예술 활동을 창조하고 있는가?

나의 것을 등한시 한 채 남의 것만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문화적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얼마나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오천년을 지탱해 온 생명력을 이어 받으며 기쁘게 살고 있는가?

우리 한민족은 큰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신앙하며 투박하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신명(神明)을 받들고 살아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천애인(敬天愛人)이요,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의 근본정신으로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 땅위에 수천년의 뿌리를 내리며 지금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대한의 사람이라면 군자의 마음, 선비 정신, 그리고 머슴의 몸으로 살아야 우리 고유의 맛과 멋이 우러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은 세상이 혼돈하며 인간의 정신이 사라지고 물질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명이 움을 트면 처음 시작의 자리로 되돌아 가야 한다.

큰사람은 기본이 튼튼해야 하므로 모든 거짓것들을 털어 내고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큰사람으로 성숙하려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원칙과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근본이 흔들리면 기초가 부실해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처럼 모든 일의 의미가 없어진다.

"훌륭한 골퍼가 되기 위해 가장 훌륭한 조건은 기본기 입니다. 기본을 충실히 연마한 뒤 자기 몸에 맞는 과학적인 기술을 익혀야만 비로소 골퍼로서 대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골프 스윙지도 전문가인 리드베처는 자신의 성공철학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해지고 자기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존감이 충분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대도무문(大道無門) 의 경지에서 물처럼 자연스럽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인격이 성숙하고 큰마음으로 살면서 모든 것이 넉넉하면 울타리가 필요 없는 초월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때 문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그래서 큰마음은 대도무문으로 산다.

시류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휩싸여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으면서 하늘 마음으로 영원을 무대로 삼는 큰 마음을 보고싶다.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이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인들과 만나고 싶다. 그리하여 먼 옛날 상고의 시대에서부터 잃어버린 전설의 꿈을 찾아내어 오늘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이요 예술의 혼이 아니겠는가?

4 삶은 예술이다

예술이란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을 깨우는 것이다.

예술은 진리와 생명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이다. 아름은(씨알)의 체험이기 때문에 사물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예술적인 삶은 존재의 알음(씨알)을 아름다움으로 느낄 줄 아는 마음이 기본이 된다.

아름다움이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주체의 능력과 깊이에 따라서 일도의 방향만 달라져도 외적인 형태와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진리의 차원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 있지 않다면 예술이란 영혼을 혼란시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뿌리는 하나지만 줄기와 가지는 수만개이듯 존재의 근본인 마음은 하나 일지라도 그 표현방식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수천 수만의 색깔과 형태로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여러개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지만 미술 점수는 미(美)밖에 안된다. 초등학교 4학년때 야외 사생을 나가 나무를 그리는데 어찌나 잎이 많던지 한시간 내내 연필로 나뭇잎만 그리다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점심도 먹지 못한 일이 있다. 그래서 미술 점수는 미가 되었나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보면서 저정도 크기와 수준이면 수억짜리 그림이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부자인 것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간다. 얼마전에는 차를 몰고가다가 여인네들이 밝고환한 웃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영화의 한 대목처럼 기분이 좋아 차를 멈추고 한참동안 지켜보기도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그는 늘상 빈곤함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연을 즐기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넉넉한 마음이 바로 예술의 근본이라 믿으며 그 마음을 키우는 공부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진정한 예술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제는 양의 시대가 가고 질의 시대가 오고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도 외적인 지향보다는 내적인 관념으로 바꿔져야 한다.

며칠전 재미있는 외국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서구 문명의 한계를 체험할 수 있었다. 외부지향적이고 감각 자극적이며 크기만을 주장하는 서구 문화는 섹스와 폭력,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제는 정적인 깊이의 영성문화로 돌아와야 한다.

우주를 정복할 수는 없지만, 우주를 가슴에 묻고 그 생명의 기운과 질서를 느껴 볼 수 있는 마음의 차원에 도달할 때 우리는 안심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위로해 줄 수 있다.

바다를 그리워하면서도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조그만 옹달샘을 깊숙이 파들어가는 그런 큰마음이 바로 예술의 삶이 아닐까?

어차피 우리의 삶이란 날마다 신(神)을 향해 한 걸음씩 달려 나가는 거룩한 순례의 행진이기 때문에…

한국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1997.4.19 성수휴양림
초청강사 : 이철량

오늘날 세간에는 한국화의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그 동안 한국화가 현대미술 속에서 그 영역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생각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화의 위기를 가져온 현대미술의 과정 속에서 한구화의 실체는 무엇이었던가?

-한국화의 현대적 과정

조선조 몰락 이후 한국화는 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1. 일제시대: 일본화의 영향으로 서정적 낭만주의와 일본채색화가 유입되었다. 변관식과 이상범은 조선조의 전통과 일본적 서정주의를 극복한 근대주의를 실현했다.

2. 50-60년대: 서양의 추상주의가 유입되면서 한국화단에도 커다란 파고를 던졌다. 이때 한국화의 추상화가 등장했고 매체실험이 활발했다. 그러나 이후 실험주의는 몰락했고 다시 한국적전통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었다. 박재현, 서세옥등은 현대적실험과 조형 그리고 전통적인 표현정서를 잘 소화해낸 경우이다.

3. 80-90년대: 추상주의와 매체 실험 중심의 현대적 과정에 대한 반성으로 수북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후 채색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면서 먹과 채색의 호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한편으로 서양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색채위주의 혼합기법이 유행하게 된다.

4. 90년대 후반: 먹과 색채의 혼합기법은 점차 다양한 매체의 혼합으로 이어지며 탈장르로 이어지던 90년대 초반의 현상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화가 걸어온 현대적 양상은 지극히 양극화 현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그 하나는 급변하는 사회션상을 막으려는 지나친 전통주의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성을 획득하려는 맹목적 실험주의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속에서 한국화의 위기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있다.

첫째: 앞서 지적한 극단적인 두 가지 양상 즉 산수화를 비롯한 전통주의와 매체 중심의 실험주의 외에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가치관의 몰락을 들 수 있다. 19C 농경사회가 20C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변모로 인해 삶의 중심체를 상실했다.

둘째: 미술교육의 부재를 들 수있다. 수채화, 서양화, 위주의 교육으로 전통회화의 상실과 전통정신의 몰락을 가져왔다.

셋째: 작가들의 작가 의식이 부족하다. 출세 지향적 태도, 서구 미술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등이 서양화와 가깝게 그리려는태도가 지적된다.

넷째: 한국인들의 지나친 서구 문물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지적이다. 이에 편승한 일부 화랑과 져널들의 상업성도 지적이다. 한국인들은 동양 여러나라들 보다 유독 서구 문물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화는 위기로 지적되고 잇으나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기회 일수 있다.

첫째: 기회는 항상 위기에서 온다는 세상의 이치가 있다.

둘째: 한국학과 한국적 전통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활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2000년대의 한국민들의 비젼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전개 될 것이다.

셋째: 미술시장 개방은 전통미술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넷째: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면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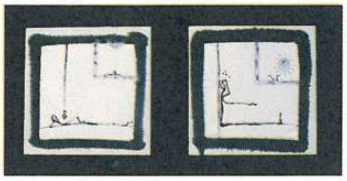
결국 기회는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전북회화

전북회화













전시기간 : 1997. 11. 28 (금) ▶12. 4 (목)

전시장소 : 전북예술회관 2층 2실

초대일시 : 1997. 11. 28 (금) 오후 5시 30분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한점 한점 채워 나갈때

고 재 명



나무/10호/한지에 수묵/1997

화가로서의 생명력은 살아온 삶을 통한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독특한 색깔과 자신의 느낌을,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될 때 비로소 작가의 존재가치와 생명력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추구하는 작품 경향은 주로 주위에서 흔히 보여지는 갈등, 고민, 고통, 죽음등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갈래의 형태를 재분석하여 나 나름대로의 직관과 감성으로서 재창조하는 작업이다.

어떤 때는 생명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도 하지만 때로는 진열장의 상품처럼 남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요즘 사람들, 그야말로 물질만능주의의 범람으로 인간의 가치가 소멸되어 상품화 되어 가기도 한다. 이런 모습들은 때로는 절름발이며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현재 나의 눈에 비쳐진 실존의 모습들이 아닐까? 이것이 또한 모든 욕구와 문화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사회 전반적인 형태의 모습들이라 하겠다. 삶의 공간에 슬하게 보여지는 일련의 양상들은 판화기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번짐을 통해 자유스러운 형태를 끌어들여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긴장감을 줌으로써 나 자신에게 새로운 존재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현실과 실존 그 속에서 나의 모습, 앞으로도 많은 문제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이 태어나는 기분으로 한점 한점을 채워나갈 때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또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이리라.



'97예수-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한지에 수묵 / 55×67 /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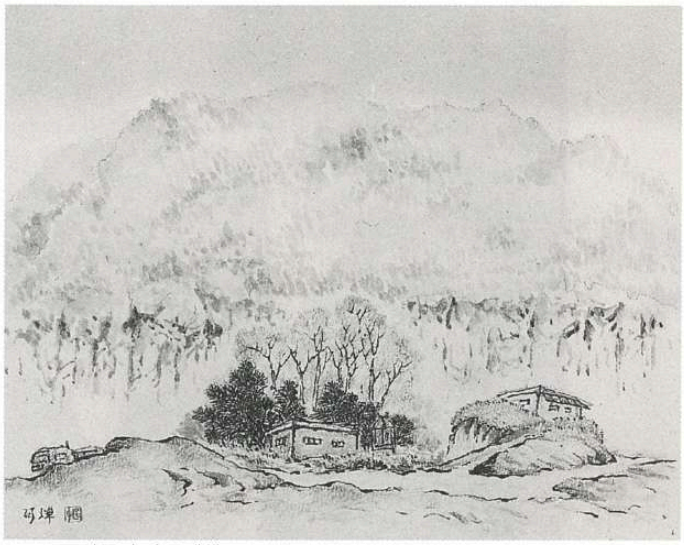
늘 그분과 동행하며

문 순

예수 안에서의 평화는 상대적 기쁨이 아니다.
절대적 만족, 감사이다. 그래도 내가 져보다는 나으니까.
저만큼은 아니니까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언제나 기쁠 수 있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풍요이다. 느낀자만이 끄덕일 수 있겠지만,
그분은 늘 모자람이 없기에 나는 늘 그분과 동행하며
미소지으며 살아간다. 단, 교만을 물리치면서…

작년, 아빠의 죽음앞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정리해 낼 수 있었다. 해야할 일들에 대해 책임감있게
해내고, 그리고 내가 하고픈 일들을 이루어내리라.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내야지 - 좋은 그림을 그려 내는 것
그려 낼 수 있을까. 그러나 미지수이기에 더욱 희망적이지 않겠는가.
'왜 그리는 것일까?' 왜 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데도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일까?-큰 딸아이의 일기장에 적힌 '위인전을 읽고나서'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헷세가 말했듯이
'강자(強者)라 함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기필코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인이나 강자는 내 안중에 없다. 나는 그림쟁이.
나는 내속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냈다. 나는 들키기를 원한다.
내 속 삶이 드러나 보여지고 그것도 한 우주요, 한 세계라는 소박한 道.
바꾸어보라고 말하지만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그린다고 대답하고 싶다.
늘 내 속에 존재하는 생각들, 가장 인간적인 삶의 도전-사랑과 양심.
내일도 한강의 물줄기를 보러 갈까보다. 묵묵히 도도히 흐르는 강물-
왜 그것이 그냥 흐르겠는가? 저 강물이 흘러내리는 까닭은?

〈작가노트 中에서〉



아중리/수묵채색/41×31.8/1997

아중리 소묘

방정엽

아중리

아중리 개발지구에 흙바람이 분다.
황량히 펼쳐진 황토벌판
개발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파헤쳐진 산자락
어디까지 개발이고
어디까지가 환경 파괴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몇 채 남은 집들은 포크레인에 허망히 헐리고
그 잔해만이 어지러이 널려 있는데
어디가 동산이었고 어디가 집터였는지 찾을 길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문득 창너머로 기린봉을 본다
작년봄 연록의 기억이 생생한데
높이 올라가는 시영아파트에 산중턱 절집은 볼 수
없고,
남포소리와 더불어 산자락은 붉은 파편을
튀기며 잘려 나갔다.

자고나면 길이 바뀌고 변하는 이곳을
아이들은 걸어서 잘도 찾아온다
황토 자갈길, 먼지를 맞으며
학교에 왔다가 뿌연 먼지를 먹으며
집에들 간다

김밥이며 쫄면이랑 팔던 분식집 아줌마,
이사 비용도 받지 못했다고 한참을 버티다
떠난 그 아줌마는 지금쯤 어디에서
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지…
무진장 산골에서 흘러와 이 아중리에
뿌리박고 살던 끈질긴 생명력의
주인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3학년 주희의 시〈아중리〉를 실어본다.

아 중 리

한 건물이 헐렸다
내 살던 집이 헐리고
이웃한 용재네 집도 헐렸다
골목길 돌아 잠자리 잡던 언덕이 헐리고
그 언덕 너머 미나리깡도,
그 미나리깡 굽어보던 동산까지도
산이 헐렸다.

이 자리엔 도로가 난다.
굽이돌아 모퉁이, 신작로였던 이 곳에
일직선 4차선의 도로가
이 자리엔 아파트가 선다
풀꽃 떼로 피워 나비날던 이 곳에
20층의 높은 아파트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지금,
아중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노오랗게 여기저기 흩날리는 흙먼지와
뚝딱뚝딱 육중한 기계소리
밤이되면 황량함만이 존재할 뿐.

하지만
아침이 땅을 녹이면
98번 버스는, 맑고 깨끗한 숨소리들을
아중리에 배달하였다.

희망에찬 숨소리를 꿈꾸며
아침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98번 버스를 탄다.

「강주희의 아중리 전문」

나의작업노트

강물처럼 깊고 잔잔한 지혜가 떠오르기를 기대해 보며

서 진 숙



추향/수묵담채/56×48.5/1997

모든 예술활동은 고대로부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에서 비롯되었다.

농경이었던, 목축이었던간에 한해 수확을 마치면 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다음해에도 일이 잘 되도록 비는 마음으로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며 춤도 추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들은 피로를 풀고 같이 기뻐하며 즐거움을 같이 나누었을것임은 말할나위가 없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생활습관이 높아지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되고 그 여유를 향유하기 위해 예술활동의 현장을 많이 찾게된다.

예술은 꽃이다. 꽃은 창조물이고 뿌리는 문화다. 꽃은 뿌리가 튼튼해야 탐스럽고 예쁘게 된다. 그 뿌리리를 튼실히 가꾸어 예쁜 꽃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은 무던히도 노력해야 한다. 요즈음 처럼 생활이 복잡하고 인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체의 역할을 해야하는 이들은 바로 예술인들이다.

나는 15여년을 그림을 그리고 내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미흡하남 제 각각 나름대로의 사연들을 안고 있고, 그린다는 행위가 내 삶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오면서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추억과 소박한 꿈, 그 속에 흐미하게 보이는 그 무언가를 더듬어 본다.

나는 요사이 산과 계곡을 즐겨 그려본다. 산과 계곡의 바위들은 다양하고 웅장하며 현대적인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계곡의 흐름은 경쾌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힘이있어 자연의 호흡과 기운을 느껴보며 항상 화선지를 펼쳐놓고 흰 공간에 우리의 감성에 맞는 우리의 자연을 표현해보고자 한다. 자연 풍경과 물질문명속에 욕망을 사유하듯 의식속의 내용을 자연을 자연으로부터 재 환생한 자연의 일부, 강렬하게 느껴지는 먹과 그 흐름속에 급격히 변화되는 구도와 원색의 사용, 번짐의 효과를 이용한 화면, 포근함이 있는 인간 삶의 공간, 삶의 무게와 가치를 느끼고 이를 조형적인 깨달음으로 접근시켜보자 하며 내 자신 스스로의 예술관이 분명하고 자긍심을 갖고 작업할 수 있도록 넓은 강물처럼 깊고 잔잔한 지혜가 떠오르기를 기대해보며 오늘도 아니 내일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生-외출/수묵담채/93×125/1997

나는 그런 아침을 좋아한다

안 순 금

生- 흰구름이 또 산에 걸려 있다.

.....

生- 흰구름이 지금은 수채물감을 풀어 놓은 것 처럼 번져있다.

.....

生- 사라졌다. 지금은 산, 나무, 그리고 저만치서 많은 집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풀, 꽃들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풍경과 고요함, 아침 안개가 막 걷히고 창 밖으로 다가오는 회색 풍경의 운주로 가는 시간이다.

나는 그런 아침을 좋아한다.

形象- 내게 있어서 표현은 내가 만나는 순간 순간의 삶의 표정이며 내 내면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다. 나는 일상적인 것들에 참 많은 흥미가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부딛혀 다가오는 사물들, 그런 시간 속에서 순간 순간 다가오는 느낌들, 그래서 내 그림에 나타나는 형상들은 사실적이지 못하고 내 생각들처럼 뒤엉켜 있고, 동시다발적이며 혼란스런 느낌마져 준다.

墨- 나는 墨을 좋아한다.

나는 담묵에서 배어나오는 느낌과 붓자국이 좋다. 농묵에서 느껴지는 강함과 무거움이 좋을 때도 많다. 종이위에서 번지는 파묵의 느낌위에 속도가 빠른 강한선이 지나가있는 모습은 나를 기분좋게 해 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통하지 않는 대화로 머리가 어지럽고, 뻣뻣해질때 화선지 위에서 배어나오는 수묵의 느낌은 나를 평온하게 해 준다. 참으로 좋다.

나는 그림 그리는 일(業)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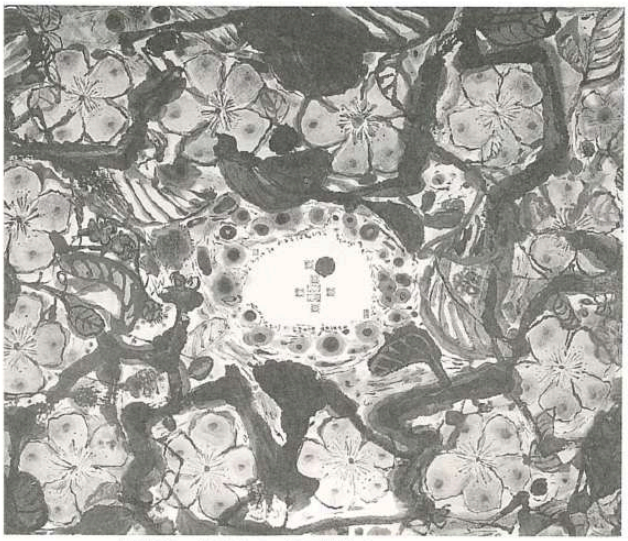
매일 매일 다가오는 시간중 아침처럼,

그리고 내가 行하고 있는 모든것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행동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아끼고 싶다.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

엄 기 석



생명꽃 · 생명물 / 수묵채색 / 116.7×91 / 1996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 1

어느 해인가 등교 길에서 바위틈에 있는 이름 모를 보라색 들꽃을 보았다. 들꽃을 보는 순간 생명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새롭게 사물을 느끼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조용히 숨쉬며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 어린 사랑의 교감이 있었다.

그럴 무렵 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요소이며 흐름이신 분을 만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나의 삶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림을 그리는 일도 그렇다. 이때부터 내머리에 가슴속에 각인 되었던 회화의 모든 이념들을 지워 버리기 시작했다. 추상도, 포스트 모더니즘도, 전통도, 구상도 지워 버렸다. 다만 생명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리는 내가 즐겁고, 욕심을 부려 감상자도 수면 속에 잠긴 생명의 이야기들 속에서 평강과 안식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족하다.

1996.11.29 첫눈 오는 날에 -기석-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 2

담장넘어로 단풍이 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아이들은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여기가 어느 장소인지도 모르고 소풍온 것처럼 뛰놀며 재잘거린다. 건물 한 켠에선 통곡과 더불어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엷게 퍼진다.

나는 마음 깊은 속에서 성경 한 구절을 되뇌이고 있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구절이다. 가족들의 흐느낌을 뒤로 하고 한줌 재로 변해버린 육체는 항아리에 담아졌다. 노란 은행잎이 더욱 노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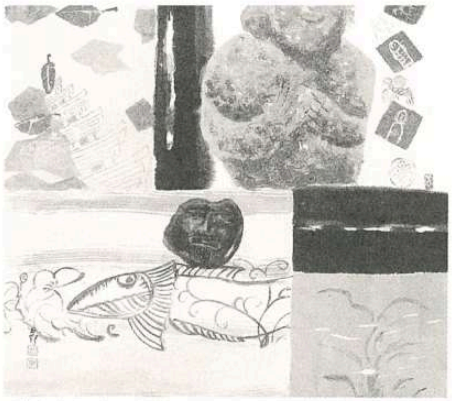
사람의 물질적인 몸 안에서 생물학적 생명〔헬리어 비오스(bios)〕이 있고 혼 안에는 심리학적 생명〔헬리어 수케(psuche)〕이 있다. 거듭났을 때 영안에 또 다른 생명인 영원한 생명〔헬리어 조에(zoe)〕을 소유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인 조에는 피조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며, 썩지않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존할 뿐 아니라 시간과 성질 모두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사망의 세력이 엄습할 때 아무도 거절할 자가 없다.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모든것이 정지해 버린다.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분의 부활만이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아 너 쏘는 곳이 어느냐" 그 만이 사망을 비웃고 사망을 떨치며 일어난 분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내가 만난 주검들 앞에서 나는 인생의 공허함을 만진다. 그리고 더불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

내가 그리는 꽃이 어떤 꽃일까? 어떤 꽃이든 나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슴속에 간직한 수 많은 들꽃들이 있다. 죽음을 통해서 생성된 생명의 꽃이요, 부활의 꽃이다. 죽음후에 남는 것은 다만 생명을 통한 부활의 이야기다. 나머지는 재다.

오늘 더욱더 진일보한 생명의 교통이 있다면 나는 그림 그리는 일을 멈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려야 할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1997.10.28 형수의 죽음을 뒤로하며 -기석-



백제기행/지본채색/56×48.5/1997

나의 작업노트

은근하고 소박한 아름다움

이 승 훈

프랑 까르뗄은 "미술의 목적은 보여진 사물을 캔바스에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사물을 표현으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술의 임무는 인간의 삶을 불타오르게 하며 강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림 작업을 해오면서 타인의 많은 작품을 대하게 되었다. 그 때마다 '나'와 '작품'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간을 교감을 갖게 되었다. 하나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책을 보며는 도움이 된다. 사실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미약한 편이다.

부쩍 백제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유산을 화폭에 담고 싶었다. 그 근원은 어린 마음속 깊은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땅은 발길 닿는 곳 어디든지 박물관이 아닌 곳이 없다고 했다. 풍경도 좋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마음으로 표현한 인공미는 더 좋다. 그것은 나의 화재요, 소재이다. 그것이 주체이기도 하다.

조용한 시간이면 찾아가는 곳이 있다. 익산 미륵사지다. 무너진 석탑이라고 할까, 깨어진 석탑이라고 할까, 망설이다가, '역사의 마음을 표현한 석탑'이라고 결론지었다. 학창시절에 친구와 찾아간 것이 처음 인연이 되었다. 그 때는 이름 모를 나무에 싸여있었고 탑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탑을 에워싼 논 들이 있었고 우물이 있는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발굴 작업으로 그런 풍경은 없어졌다. 그 소나무도 없어진 것은 못내 아쉽다.

미륵산 자락의 마을 대신 유물전시관과 길 건너 생두부집 등 먹거리 상점들이 가득하다. 나를 남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편에 미륵사지에 대한 설명과 시적 가슴앓이가 펼쳐져 있다. 아름다운 글을보니 안심의 숨을 쉬었다. 따라서 나의 화선지에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미륵의 역사, 눈부신 아름다운 역사를 표현하려 했다.

탑과 함께 석탑의 네 귀퉁이에는 수호신상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석상이 세 개만 존재한다. 이 석인상은 나를 항상 맞이한다. 가슴에 두손을 얹고 깊은 미소를 보여주다가 세파에 흔적만 남아 있다. 오히려 미더운 석인상인 것이다. 무너져 내린 탑만 애석하게 생각할게 아니다.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 증오와 한스러움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깊은 생각에 빠져보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도, 모나리자의 미소도, 신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도 이 석인상보다 더욱 은근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은 없을 것이다.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다. 결코 추하지 않고 휘황하게 번들거리지도 않다. 그 모습은 발길을 되돌리지 않게 한다.

금당지에서 출토된 암·수막새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얼굴무늬 기와는 독특한 인물의 얼굴이다. 노인의 모습인데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견디고 살아온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다. 토속적이며 민중의 모습인 것이다. 기왓장인 그들의 모습을 반추하여 만들거나 부모님을 연상하여 새겨 넣었는지도 모른다.

백제시대 회화를 알아 볼 수 있는 벽화편이 출토 되었다. 그 벽화 편을 보는 순간 찬란한 영화의 나라를 다시 보는 듯 하다. 당초문이 보일 뿐이지만 그 선의 아름다움이 석탑의 반전하는 모습과 같이 화공의 미적 정서를 전해준다.

소재와 표현의 대상은 일치하기도 하며 미궁에서 겉돌기도 한다. 나의 신념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작가나 감상자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작품은 간단한 몇점의 소재로 더욱 흡인력있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많은 소재는 수다스럽고 더욱 난감하게 만든다.

화면의 왼쪽은 생이파리가 흩날리는 모습이다. 시간이 다 되어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새파란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은 백제의 최후를 말함과 석탑의 아픈 상처를 고발하는 것이다.화면의 오른쪽은 다시 새롭게 역사가 정립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바탕은 우리네 마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흙담이나 비올 때 볼 수 있는 흙탕물, 가을날 하늘, 도자기 표면에서 볼 수 있는 색들이다. 미륵사지에서 보는 야트막한 산, 넓은 들의 색이기도 하다. 먹색의 검은 선 사이로 오방색이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의 옛 마음의 색이다. 무지개빛 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었던 색채다. 나의 화면에도 이 오색은 차용된 것이다. 점차로 확대 되기도 하고, 함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분할된 바탕면은 창문 살이나 조각보에서 흔히 보여지는 비례와 구조 미학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구성위에 미륵사지 기행에서 얻어진 고미술품이 재현되어 전체적으로는 백제의 가슴앓이를 표현하여 아름다운 미의 경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이다. 나의 작업 태도와 문화유산의 해가 어느정도 접근이 있기도 했던 해이다.

날 수 없는 몸짓은 태워 버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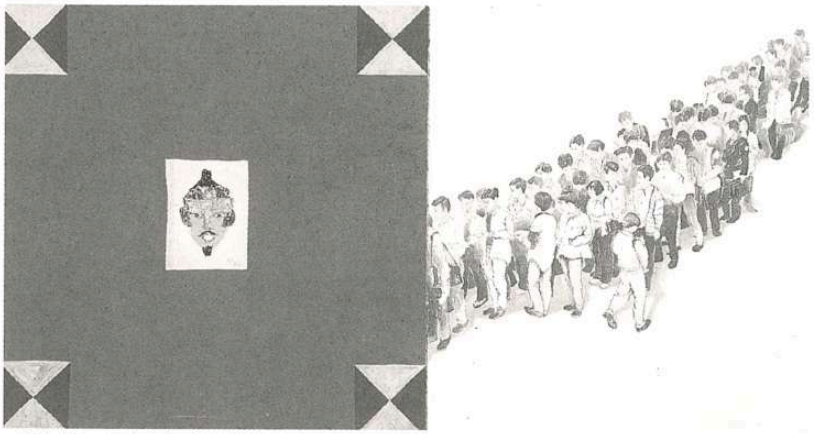
枇陰은 언제쯤 가실까?

이 우 정



枇陰/혼합재료/41×31.8/1997

어둠이 서서히 몸을 감쌀무렵 나뭇가지 풀등에 앉아 默考을 청한다.
풀잎선에 등 기대고 눅눅이 젖어버린 두 날개는 조용히 접어두곤
심장소리만 들릴 뿐 움직임 없는 몸짓은 차갑게 식어만 간다.
감은 눈사이로 얇은 알갱이가 굴러 다닌다.
서로가 모아지곤 금새 엉키어
고리를 타고 볼 밑으로 흐른다.
날 수 없는 몸짓은 태워버리고 싶다. 夕日만으로도 태울 수 있다면…
더욱 야위게하고 차갑게 하는 비음은 언제쯤 가실까?
비음은 언제쯤 가실까? 끝



옛날에는 / 장지에 수묵채색 / 244×122 / 1997

나의 작업노트

옛날에는

이 철 규

나의 작업속에 나타나는 산, 구름과 비, 해 등은 自然에 대한 상징이다. 壯者의[天道]편에서 "대저 天地自然의 德에 밝다는 것, 그것을 세상 모든것 모든일의 根本이라 한다.

그것은 하늘과 조화된다.

그리고 천하를 조절하며 사람과 조화되는 원인이기도 한다. 사람과 조화되는 것을 사람의 즐거움이라 하는데 자연과 조화되는 것은 하늘의 즐거움이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천지자연의 덕에 밝다는 것은 자연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며 자연의 한 일부분으로서 즉 자연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토분위에 상징처럼 나타나는 푸른 산과 구름 그리고 비와 해는 自然에 대한 순응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땅의 소중함과 자연에 대한 덕을 깨우치는 자만이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조그마한 지식으로 自然의 眞理를 어떻게 역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민족은 옛부터 정신문화가 발달된 우수한 민족이다. 정신문화가 발달된 민족은 고고하고 훌륭한 문화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음양오행사상의 표현인 사신도를 비롯하여 점성술, 사주팔자, 등은 일반 민간에 의해 전승되어 온 수많은 무속신앙과 기복신앙들이 이를 대변해준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인 무속이나 기복신앙이 그 상징물로 대신하여 나의 작품속에 표현되는데 일반 서민상과 함께 자연에 순응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또한 토분위에 凹凸을 가해 고랑같은 느낌을 준 것은 숨쉬고, 살아움직이는 땅의 표현으로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自然復歸思想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傳統에 대한 現代的 解釋"이란 말이 요즈음 미술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傳統이란 단어를 쉽게 말하곤 하지만 그리 쉬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어사전에는 "계통을 받아 전하는 일. 또는 받아 전한 계통이나 오랜 역사"라고 나와 있다."받아 전한 계통"이나 "오랜 역사"를 옛 선조 그대로의 모습으로 현대에 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대를 거치면서 단절되는 것도 있는 반면 그 형태가 그 시대의 풍속에 맞게끔 차츰 변해지면서 내려 오기도 하는 것이다. 즉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되어진다는 차원에서 만이 "현대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변된다는 것은 정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한 형태상의 겉모습 만 접근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문양, 의습, 그림, 등을 작품에 응용한다고 해서 전통의 현대적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가시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조그마한 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나름대로 전통에 대한 접근하는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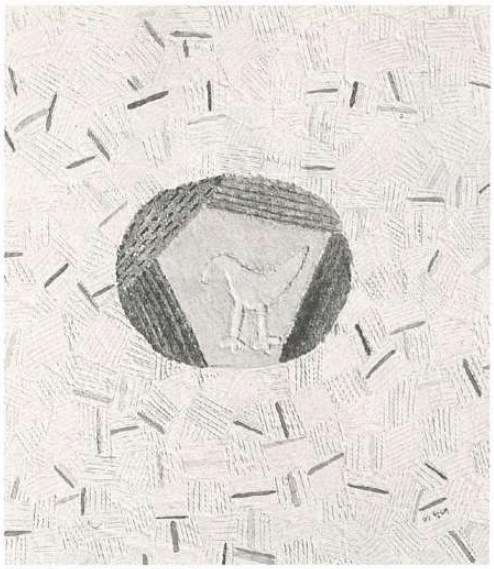
그 방식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을때 그 당시 왜 이런 문양들이 사용되었으며 풍속들이 유행되었는지를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어떤 철학적 깊이가 병행될 때 전통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의 작업에서는 구한말 시대의 인물들과 그 놀이문화, 그리고 고구려 古墳壁畵에서 나타난 문양이나 풍속도 등이 자주 나타난다.

구한말 시대의 인물들을 자주 화면에 배치시키는 것은 구한말이라는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그 당시의 의습이나 생활상을 사진첩이나 책자를 통해 그 자료를 구하기가 쉬워서 였으며, 또한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일제침략, 광복, 남북분단, 6.25동란... 들이 민족의 수난사에 그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현재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관심은 고분벽화에서 나오는 사신도와 풍속도, 종교적 인물 표현 등은 다른나라의 어떠한 영향도 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우리 순수한 미술이기 때문이며, 후에 고려의 佛畵, 조선시대의 김홍도, 신윤복의 風俗畵, 基祈福信仰의 한단면을 표현한 民畵와 坐神圖, 등으로 고분미술 이후에 잃었던 어떤 무속신앙의 무교미술의 재흥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분을 화면에 발라본다. 그 느낌은 순수하다. 마르기 직전에 나이프로 빗살무늬같이 긁어내면 구석기 시대의 토기같은 모양이 우러나서 좋다. 그 토분 속에는 한민족의 정서를 담아내는데 내 자신 더 좋은 재료는 없는 것 같다.



산 · 들 · 바람 / 혼합재료 / 120×150 / 1997

자연으로 부터

이 환 배

새벽까지 벗들과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한 모금씩 마시던 소주가 어느새 내 몸깊숙히 스며든다.

몽롱한 만취상태에서 지난날의 추억들이 떠오른다.

20대 중반의 힘겨웠던 생활! 그리고, 행복했던 연인과의 추억들.....

담배 한 모금의 기억들이 연기처럼 사라져 가버리면, 맘 한구석에는 11월의 싸늘한 새벽 바람만이 남는다.

술을 먹지 않는 날은 예전과는 달리 자주 붓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작업을한다.

현실에 얽메이다 보니 쉽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두려워 진다. 그러나, 일단 화폭에 마음을 담으면 평온함에 목마른 씨앗이 단비를 맞듯 활기가 넘쳐 흐른다. 그러면,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세상만사 걱정들이 모두 사라진다.

검정색이 싫어 좋아질때까지 칠해보고
하얀색이 싫어 좋아질때까지 칠해보고

평면적인 면이 싫어 오브제를 이용해 생명의 근원인 구름 사람들의 이상인 새, 그리고 이름모를 들꽃, 알아볼 수 없는 형상들이 모여 어느새 작품하나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것이 느껴진다.

내가 자연을 주제로하여 작업을 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어린시절 시골에서 들과 물 그리고 산을 벗삼아 살아왔고 그 곳에서 정서가 형성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봄이되면 누나와 함께 나물 체취하러 들판에 나가면 이름모를 꽃들로 시계를 만들어 주던 기억, 나는 수줍음을 타면서도 내심 시계를 갖는다는 설레임에 손을 내민다. 창공에는 새들과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저멀리 지평선에는 아지랭이가 살아 꿈틀거린다.

여름에는 마을앞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버드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어보고, 싫증이 나면 구멍을 뚫어 음율을 맞춰 보기도 했다. 가을에는 풍성한 과일들이 나의 식욕을 돋군다. 우리집에는 감나무 밖에 없어 밤, 대추, 단감, 사과, 포도등 모든 과일은 주변에서 구해야 한다. 한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가 따먹 기도 하고, 친구들과 대낮에 서리를 하곤 했다. 그러다 들통이나면 호되게 혼나본 기억들이 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덜 익은 포도가 시면서도 그렇게 맛있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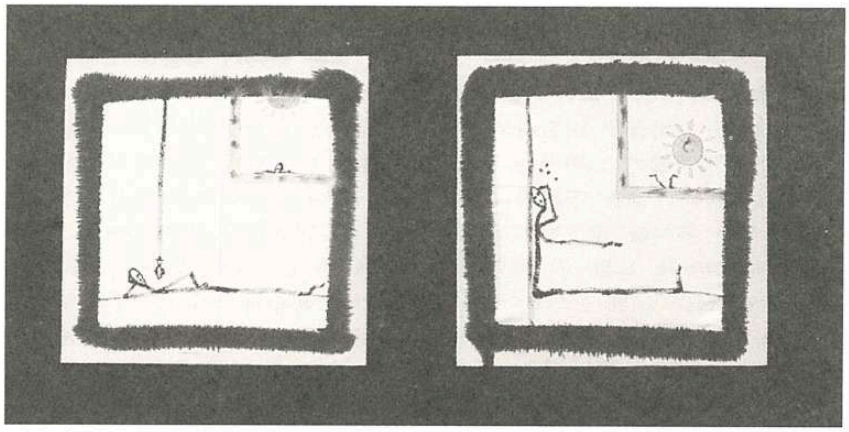
그렇게 겨울은 왔다. 내 어릴적 겨울은 사냥의 계절이었다. 시장에 가는 어머니께 쥐덧을 부탁해 사냥을 했다. 눈이 많이 내리면 꿩, 비둘기들은 먹이를 찾으러 야산 들녁으로 나온다. 그때 추수를 끝내고 남은 찌꺼기 위에 쥐덧을 위장해 두면 꿩과 비둘기가 먹이를 찾아 쥐덧에 걸리곤 하였다. 대부분 다리에 상처가 나는데 그렇지 않은 놈들은 토끼장에 가두어 기르기도 했다.

이렇듯 유년시절이 자연과 벗삼아 살아오다 보니 자연은 나의 친숙한 벗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은 물질적인 현실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자연의 품속으로 되돌아가 전원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산, 들, 바람과 함께 벗삼아 작품을 채소 가꾸듯 일구어 나가고 싶다.

일상에서의 탈출은 나에게 잔잔한 바다위에 거친 파도를 뒤섞여 놓은것과 같다.

정 미 현



작업 이야기/천에 수묵/136×73/1997

뒤섞여 매몰되어 가는 시간속에서 깊은 상실에 빠진다.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깍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떼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음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도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
음 좋겠어
도종환님의 글中"」

일상에서의 탈출은 나에게 잔잔한 바다위에 거친 파도를 뒤섞여 놓은것과 같다.
이리저리 뒤섞여 버린 혼란은 새로운 반란이 되어 또 다른 함성으로 이어진다.

불쑥 뻗쳐오르는 힘이 긴 침묵을 밀어 낸다.
멈추어 버렸던 것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꿈틀거림으로 번져간다.

• • • • • • • • • • • • • • • • • • • •

손가락이 아프도록 그어본다.
생각에 잠긴다.
많은 선들이 교차된다.
지워버렸다

• • • • • • • • • • • • • • • • • • • •

멈추어 버렸다.

• • • • • • • • • • • • • • • • • • • •

또.

작업일기 中에서

34살의 여행은 새로운 '삶의 비행'이 되었다.

정 미 현

7월23일

과연 배낭매고 떠나는 유럽여행은 어떤 느낌인지 호기심 반,모험심 반으로 친구들과 파리를 향해 떠났다.

파리의 새벽은 무척 조용했고 고전의 옛 빛을 잃지 않은 도시였다. 사람들은 다정하고 친절하였으며 눈에 띄게 한적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리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거리의 풍경 탓이리라. 어느곳에서나 휴식을 즐기는 그들의 여유로움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크게 당황하였던 점은 교통 문화였다. 우리 일행은 습관대로 신호대기를 하곤 하였다. 하지만 멈추는 사람은 우리뿐, 그들이 아무거리낌없이 유유히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의심하면서 순간 의아함을 느꼈다. 하지만 몇블럭을 지나면서 의아함은 풀렸다. 그것은 교통의식의 차이였다. 여기는 모든 질서가 사람중심인듯 했다. 어느곳이든 사람이 있는곳엔 자동차는 정지하였고 그러한 그들의 배려는 안심하고 도보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프랑스인의 배려와 여유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들의 거리풍경과 우리가 살던곳의 도심이 크로즈업되면서 한편 화가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생각해 보기로하고 우뚝솟은 에펠탑을 향해 걸었다.

우리가 배낭여행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짧은시간에 전공과 관련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자하는 취지였다.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의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된다'였다. 일행의 짧은 언어와 적은 정보는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육체의 피로를 가중시켜 오기도 했다. 한가닥 희망인 우리의 자유여행은 스스로의 자신감을 부추기면서 모든 문제에 해결과 결과를 통한 체험의 시간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을 풀지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특히 나에게 여행의 첫 기쁨을 안겨주었던 오랑쥬리 미술관의 '모네의 방'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화집으로만 보던 모네의 '수련'은 가히 대작의 위력과 감흥을 일깨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다음날에 들렸던 피카소 미술관에서는 크게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고 그의 생애에 걸친 수많은 작품속에 그가지닌 특별한 영혼의 정열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열려있는 창작의 분출력은 나의 부족하고 나태한 작업생활의 허를 찌르는듯 했다. 조급한 마음으로 미술관을 빠져나오다 골목어귀에 쓰러져 있는 남루한 젊은화가를 발견했다. 어찌할바를 몰라 바라만 보는중에 두 중년부인이 다가왔다. 그들은 쓰러진 화가의 모습을 보더니 급히 달려와 부추겨 주었다. 흩어진 그의 그림들을 챙겨주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그 여인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심하는 듯 하였다.가난한 화가의 모습을 뒤로하고 골목을 빠져 나오면서 그들의 모습과 파리라는 도시가 엉겨져 하나를 이루는 듯 했다. 많은 미술품과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문화는 파리 시민들의 끝없는 애정과 애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해질무렵 다른 여행지를 가기위해 야간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으면서 따뜻하고 정겹게만 느껴지는 파리의 매력을 잊을 수가 없었다.

우리 일행은 베를린을 거쳐 인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의 작은도시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고 이어 도착한 로마에서는 고대 문명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옛 로마의 모습을 잃지 않은 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로마를 사랑하고 찾는 이유를 실감할



베네치아 항


피카소 미술관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은 이 시기에 열리는 베네치아의 '베니스 비엔날레'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들려 르네상스 미술을 경험할 수 있었음도 이탈리아 여행에서의 큰 수확이었지만 비엔날레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잡은 베니스 비엔날레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곳으로 가기위해 산타루치아항에서 배를 타고 물위에 떠있는 '곤도라'를 바라 보았을때 낭만과 열정이 깃든 이들의 옛 흥을 만끽할 수 있었다. 비엔날레를 본뒤 산마르코 광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해질무렵 돌아가는 배를 타기위해 선착장에 앉아 있었을 때의 일이다. 따뜻한 바람, 출렁이는 물결속에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산타루치아라는 노래가 입가에 배어나왔다.

"창공에 빛난별 물위에 어리어
바람은 고요히 불어오누나
내 배는 달같이 바다를 지난다
산타루치아 - 산타루치아"

나는 점점 흥에겨워 크게 불렀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이노래에 흥을 돋구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우린 어디가 끝이라고 할 수 없이 계속 반복하며 산타루치아를 열창했다. 어느새 그 여인은 오래된 친구처럼 나의 손을 꼭잡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배는 서서히 산타루차아항에 도착했고 총총히 걸어가던 그 여인은 우리일행을 향해 "산타루치아"를 크게 외치며 밝게 웃었다. 그 여인과 난 비록 피부색과 언어는 다르지만 그곳에서 나누었던 교감은 자연이 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런지.....

우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스위스를 들러 알프스 여름날의 하얀 반란을 -온산을 뒤덮어버린 흰 눈- 만끽한 뒤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20여일간의 짧고도 긴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일행은 여전히 긴장감을 풀지 못했고 남은 이틀동안 무엇을 더 볼것인가 고심하였다. 여행의 흥취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마지막 파리의 밤은 깊어만 갔고 우리는 아쉬움에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비행장을 향해 달려간 우리일행은 비로서 지난 20여일 여행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욕심에 찬 것이었음을 깨달았으나 그 미련스러움 마저 소중했다.

34살의 나이에 도전한 배낭여행은 다음의 선택에 중요한 힘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삶가운데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매김 하리라.

뜨거운 여름 여행을 준비하며 설레임속에 두려운 마음을 숨기고서 여행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 저기 귀를 기울였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야 여유있는 웃음을 던져본다.

이글을 쓰기위해 고심하며 무엇을 보았고,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일상적인 장면들은 서점에 나와있는 여행기를 통해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했다. 또한 다녀온 이들도 많으리라는 생각 끝에 나의 여행기는 그들의 삶의 모습, 이루어놓은 흔적을 보며 느꼈던 감흥을 나의 부족한 언어로 써내려 가기로 하였으나 역시 역부족임을 느낀다.

이 글을 쓰는동안 지난 여름의 흥취와 힘겨운 도전에서 얻은 성취감이 떠올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시간이 되어 나의 영감을 자극하고, 이렇게 또 다른 '삶의 비행'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며 이 글을 마친다.


우피치 미술관

장승(長丞) 찾아가는 길에

이 우 정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가락도 악기의 선율도 귀에 들어 오질 않는다. 지금 눈앞에 펼쳐질 자연의 움직임 만으로도 가슴은 설레이고 움추리게 한다. 다홍치마 끝선, 주름주름 담아 깊게 깔린 무늬처럼, 늦가을.고개고개, 채곡채곡 쌓인 낙엽이 싸늘함을 감추듯 포근히 감싸 안고 있다.

완행버스 덜컹거리는 소음마저도 들리지 않는다.

개구장이들의 야무진 까아만 손으로 작게작게 만들어 진 듯한 돌다리 건너엔 느티나무의 흐트러진 가지사이로 흰분을 내 품는 빛깔마저 아름다운 현기증을 일으킨다.

하늘과 땅의 인내와 색깔은 귀를 멀게하고 마음의 덩어리를 깨트리기에 충분하다.

노령산맥 아흔 아홉굽이 갈재를 넘어 추령마을에 들어서니 입구에 새워진 장승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 장승 축제다. -

위엄과 권위의 상징인 지하 대장군(地下大將軍), 지하 여장군(地下女將軍) 장승집들을 지키고 서 있다. 허수아비가 애워싸고 있는 울타리 안으로 한눈에 보이는 순창 남조석이 보인다. 가장 크고 정교하게 사실적으로 조각된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장승이다.



"우리네 장승은"조상님들의 원시신앙의 대상이었다.

마을입구 또는 절입구에 세운 사람의 머리 모양의 기둥, 돌로만든 장승과 나무로 만든 목장승이 있는데 대게 목장승이다. 지역간의 경계를 이루거나 이정표 구실을 하지만 마음의 수호신으로서 더 큰 역활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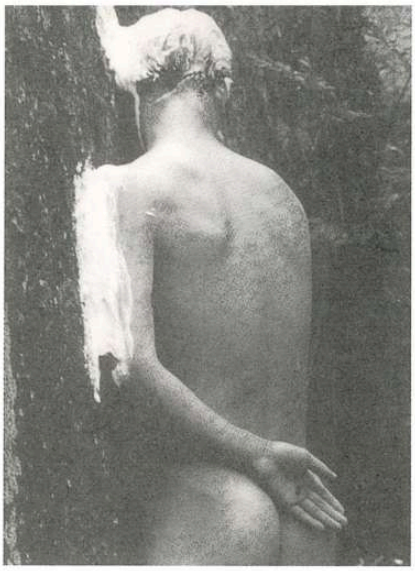
보통 남녀로 쌍을 이루고 있으며 남상은 더러 머리에 관을 조작하였는데 전면에 천하대장군, 상원 대장군이라고 썼으며 여상은 관이 없고 전면에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하원 대장군등 글이 씌여 있다. 장승은 서낭당•산신당•솟대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액운이 들었을 때나 질병이 점염되었을 때에 제사지내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경계표, 이정표가 아니고 정신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남원 서천리 장승인냥 벙거지 모자에 왕방울눈, 주먹코, 합죽이 입을 가진 소박한 민중의 얼굴을 닮은 여러 장승이 해학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움막이 지어진 삶의 보금자리엔 꼴찌장승·두심이·콩쥐팥쥐·팔푼양과 팔푼군·계백장군·코주부·견우와 직녀·절로절로 그리고 변강쇠 장승까지…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장승이 구김새 없는 표정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하루방 장승앞에 길게 그림자가 그리워진다.

주막을 맴도는 동동주 술익는 냄새와 멸치국수의 얼큰한 훈짐이 벌써 까뭇해진 하늘사이로 금새 스며들고는 한쪽 구석에 부르는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른다. 이런 공간속에 함께 숨을 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편 어둠과 함께 지고 만다.

추령 마을의 논뚝 한가운데 짚덤이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듯 하다.



신 반 作

4+7인전을 관람하고



전북 사대부고 3년
박은정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사를 3번 했다는 "맹모삼천지교" 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다. 맹자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택한 곳은 서당 옆이었다. 이 일화는 사람에게 환경이 그 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일화를 인용한 것은 내 집 환경도 맹자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이 되었던 만큼 좋았다는 걸 은근히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나의 환경은 문화생활이 여는 곳보다는 충족한 편이어서 대표적으로 대문만 차고 나오면 볼 수 있는 예술회관이 있고 이곳저곳 화랑이 많다. 중학생때부터 관심을 갖은 미술관은 내겐 정말 즐거웠고 의미있는 공간이 아닐 수 없었다. 낯설기는 했지만 재미있었고 많이 배웠으며 작품과 작가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다.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3인 바쁜 몸이지만 공부의 무료함과 더운 날씨에 기분을 달래려 예술회관에 갔다. 각기 빡빡한 전시 행사로 분주해 보였는데, 8月의 예술회관 전시장은 전시회 플랭카드만 해도 힘이 있어 보였고 예술인들의 열기가 묻어나 보여 잠시 넋을 잃고 볼 정도였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띈 것은 4+7인전이었는데, 부제가 청년 작가 수장전으로 작년에 2번째 그 전시회를 관람했던 경험을 떠 올릴 수 있었다.

이번 전시전은 작년보다 그 내용이 충만해 보였다. 벌써 7명의 운영위원이 더 참가한 데다



이철량 作

작품들도 다양하고 더 알차게 보였는데 우선은 실력 쟁쟁한 화가들에 기쁘기도 하며 호기심이 당기어 일분 일초 더 빨리 보고 싶어 두근거리는 마음에 전시장문을 열었다. 순간 전시장 안의 예술의 氣라 말하고 싶은 것들이 덮쳐 숨이 찼다.

전시회 분위기는 질리지 않고 신선하고 더 개성이 있었다. 작품들 모두 화가들의 정성과 노고가 듬뿍 깃들어져 있었고 감동과 멋도 함께 따랐다. 작품 중 제일 인상에 남은 것은 강용면 작가의 설치 작품이다. 각기 다른모습의 흙 인형을 몽땅 세워 놨는데 이 작가는 보는 이가 뭘 알길 바랬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난 그저 웃기부터 했다. 재밌는 발상과 창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사 원년"이란 제목에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렸는데 정말 역사 원년에 이 촌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뭘 했을까?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다.

이철규 작가의 "옛날에는" 작품중의 하나도 퍽 인상적이었다. 다들 같은 모습으로 앞을 가



김윤진 作

고 있는데 오직 가운데 한 사람, 작가로 보이는 한 인물만이 뒤를 보고 바보같지만 환하게 맑게 웃고 있다. 너무 바쁜 우리 삶에 가끔은 뒤를 보며 여유를 가지자 라는 주제 같기도 하고 남들만을 쫓아가거나 군중속에서 안주하고 헤메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모르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괴로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자기 반성을 하자는 교훈을 주는 듯 했다. 동시에 고3인 나도 이 작품의 인물 처럼 여유를 갖은 저 웃는 모습을 찾고 싶었다.

신반 작가의 작품은 설치 작품이 되었지 않은 팜플렛의 작품이 매우 인상적이어 제일 먼저 눈길이 갔다. "자연과 관계된 인체"의제목으로 실시한 누드 작품은 작가 자신이 실제 모델로 참여했는데 실제로 관람할 수 없었던걸 아쉽게 여겼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가 이런 흥미로운 것인지에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바위에 붙은 인체 부위 모습이 작위적이었던 것 같아 다소 어색하게 보였다.작가도 동의할 것 같은 "물아일체"사상이 흰 석고에 의해 표현된듯 했다.

이것이 바른 감상이 아닐지는 몰라도 퍼포먼스 아트가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낯선 예술 장르라 이해하기 보다는 놀랍고 신기하며 어렵지만 재미있게 느껴진다.

이 밖의 김윤진 작가, 유휴열 작가분들 모두 개성들이 남다르고 그 명성과 실력만큼이나 화려하고 멋있기가 이를데 없었다. 아아 나를 포함한 그 곳의 관람인들도 같이 공감했을 것이다. 아쉽지만 작품 모두 내가 이해하고 알고 싶었지만 그럴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해하려 할 때면 "수상한 작품"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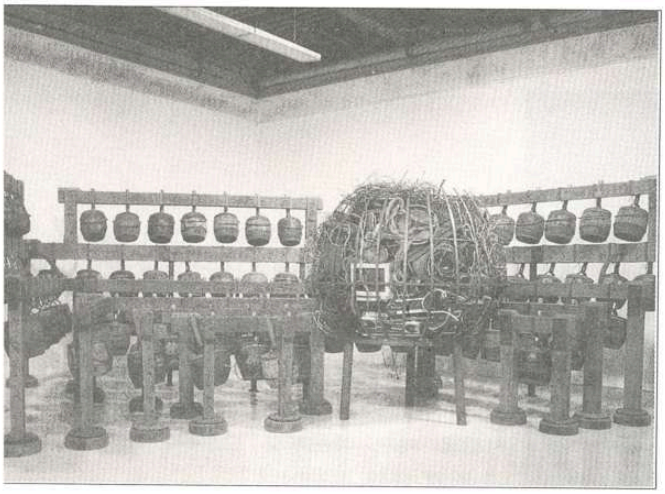
이철규 作

수식어가 감상할때마다 따라다녀 우습지만 그저 "수상한 작품이라 역시 달라"라고 편견의 시각은 짧지만은 않은 작품 관람 경험이 있는 나이지만 떠나보내기 어려운 걱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상 작품의내용이나 주제를 보면 도무지 무엇을 나타냈는지, 작가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해 냈는지 알 수 없는게 다반사다. 요즘은 너무 자기 주관과 개성만 드러내는 것 같아 보는 사람은 어렵고 난해할 뿐이다. 관람하는 사람도 꽤 중요한 역할을 작품에 대 해 담당하므로 관람객도 배제할 수가 없다. 간혹 어떤 작품은 그 정도를 지나쳐 작품이 거부감과 혐오감을 주기도 한다. 어떤 작품을 보는 사람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정의내려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폐단으로 항상 난 작품 감상에 대한 소견을 말하려고 하면 주춤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해보려 한다. 그럼 그다음 부터 감상 태도나 사고가 더 넓어지고 많은 것을 배우며 선입견을 없앨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전시회를 쭉 둘러보고 난 뒤 예술회관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뿌듯했으며 처음 들어왔던 기분보다 더 기쁘고 보람있었다. 정말 오랫만에 느껴본 감동적이고 뜻깊은 훌륭한 전시전 이었다. 아직까지 감동의 여운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다음에 혹 이들 작가들을 만나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받은 감동을 그 분들께 전해 주고 싶고 존경하는 뜻을 올리고 싶다.

다음 해 4번째 전시될 "청년작가 수상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광주 비엔날레를 찾아서

이승훈

학생들과 함께 전시장에 들어 섰다. 그리고 얼마후 처음 함께 했던 학생들 먼저 전시장 밖으로 빠져 나갔다. 무엇이 그들을 이 먼 곳까지 와서 빨리도 나가게 했는가? 사전에 궁금한 것을 보다 더 생각하고 비교하며 문제를 발견하는 힘을 길러야 했을 것이다. 아쉽지만 어떤 충격은 했으리라 본다. 질문은 늦게 터지고 만 것이다.

중국 작가 첸젠의 '일상의 주문'이라는 작품은 나무로 만든 중국 전통 요강 101개를 중국 악기인 관종대신 쓰인 것인데, 그 악기가 공산당 지도자들이 도열 했을 때 연주했던 것이라 한다. 왜 그랬을까? 변기를 매달고 그 옆에 무더기로 뭉친 폐전자 기계 부품을 쌓아 놓았나? 그리고 배경음악까지 나오게 했는가? 그래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보니 작품이 이해가 간다.

1913년 마르셀 뒤샹이 남자용 변기에 '샘'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장에 전시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렇게 현대미술은 새로운 쟁점으로 바뀌어 오고, 광주 비엔날레에서 세계적인 현대미술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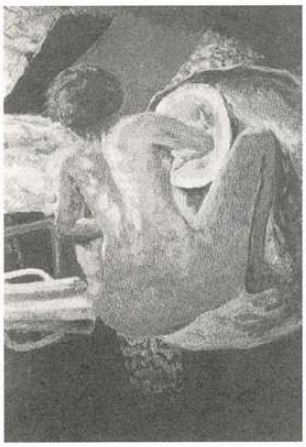
서구 화단에서는 비디오와 사진, 건축이 새로운 미술 흐름을 주도하다시피하고 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도 이러한 매체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타블로는 영상 매체로 바뀌어 있고 오브제는 사람의 크기 보다 커서 사람이 작품안으로 휘적이고 다닐 수 있다. 설치미술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비엔날레는 1995년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제1회전을 열었다. 2년 뒤 '지구의 여백'으로 다시 제2회전을 열은 것이다. (1997. 9. 1~11. 27)본전시와 특별전 등으로 나누어 전시되고 있다. 본전시는 주제를 5개로 나누어 전시 되었다. '속도-물, 공간-불, 혼성-나무, 권력-쇠, 생성-흙'이라는 주제로 하여 동양의 정신을 접목하려 하였다.

① 속도전(물水)은 현대의 속도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시간과 속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미국인 빌 비올라의 비디오 작품 '교차'는 물과 불이 파괴적이면서 에너지로써 늘 우리곁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인간을 변화와 소멸, 부활하게 하는 종교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두개의 스크린이 한 면의 앞뒤로 투사하게 되어 있다. 한 면은 불이 한사람을 태워버리고, 물은 세례하듯 사람 머리로 떨어지다가 급기야 물이 그를 삼킨다. 그리고 반복한다. 스텐 더글라스(캐나다), 요셉 보이스(독일) 등 세계적 거장의 입체 미술, 설치미술, 비디오, 영화로 나타내준다.

② 공간전(불火)은 세계 24개 도시의 삶의 현장을 통해 오늘날 지구촌의 단면을 부각시키는 다큐멘타리전이다. 사진, 오브제, 비디오, 드로잉, 건축 등이 매체로 사용되고 한네스브루너(스위스), 아라타 이소자키(일본)와 가브리엘르 바실리코(이탈리아)등이 참가하였다.

③ 혼성전(나무木)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개방되는 사람들이 생활과 정체성이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강익중의 '미국상륙' 작품은 맥아더의 모습을 만들어 초콜렛을 발랐다. 그리고 영어 배우는 여러 느낌의 그림을 발바닥보다 작게 그려서 1,400여장을 붙게 하였다. 미국인 커미셔너 코살렉은 "쵸콜렛에 대한 감미로운 기억과 미국에 대한 분노가 서린 작업을 선보였다"라고 하였다. 존 케이지, 멜친, 이기봉, 칼라 그룹 등이 작품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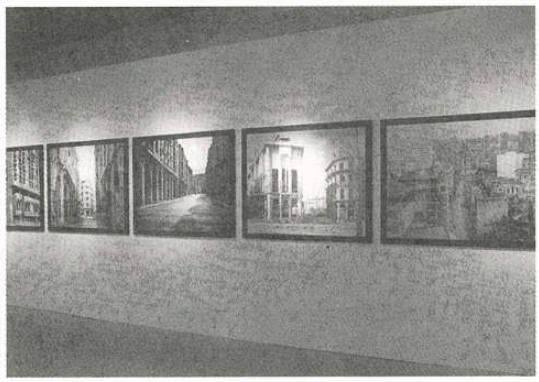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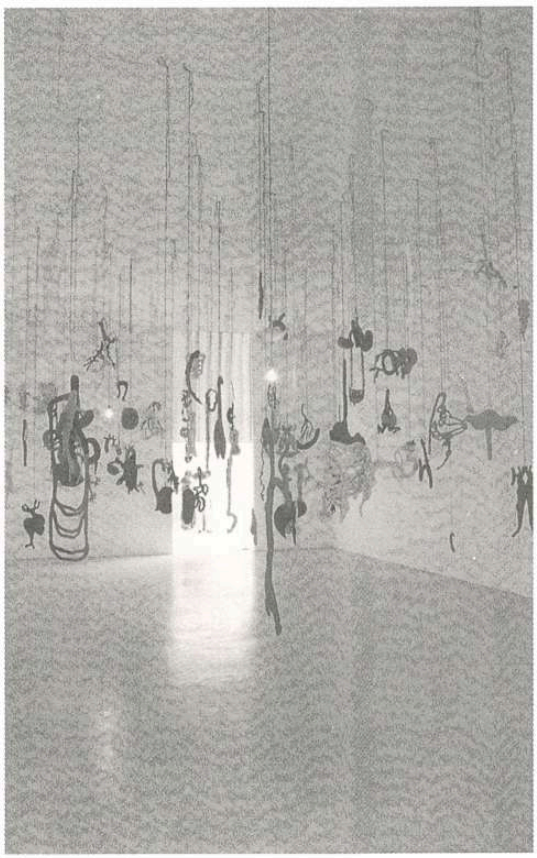
④ 권력전(쇠숲)은 '인간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명제 아래 권력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보여준다. 권력의 집중화가 낳은 광기, 빌 현대사회의 삶을 관통하는 주인 없는 권력의 양상에 이르기까지 전시될 이 번 광주 비엔날레와 광주 가장 맞는 주제 였는지도 모른다. 과거 남아공의 인종간 멸시가 나타나고, 에릭 블라토프는 러시아 20세기에서 이념에 안주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두 개의 소실점으로부터 직선으로 방사되는 빛의 처리를 과감하게 한 화면에 도입하였다. 손봉채는 여러 가지 자전거를 천장에 매달아 바퀴가 천천히 도는 것과 빨리 도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네가 자전거 처럼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힘에 의해서 여러 모습으로 지배당하고 있음을 쉽게 드러나게 하였다. 수빙의 서예교실은 영어의 낯설음을 한자로 변환시켜 도특한 체험을 갖게 하였다.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본의 아니게 새로운 창작의 맛을 보게 하였다.

⑤ 생성전(흙土)은 남성과 여성, 사물의 인간화, 인간의 사물화 사이에 변형과 새성,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시각과 청각, 후각 등 온몸으로 느끼는 전시이다. 아네뜨 메사제(프랑스)는 '침투'라는 작품을 출품했다. 사람의 몸을 해부해 장기를 꺼내어 천장에 모두 매달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불안과 충격적이다. 내장의 숲으로 침투를 해보라는 것이다. 옛날 숨바꼭질 하면서 달도 없는 밤에 공동묘지를 혼자 침투해가는 생각을 떠올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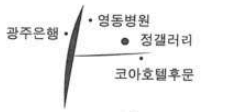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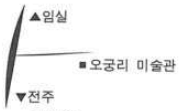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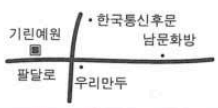
적은 시간과 많은 인파 속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기란 오산이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빨리도 전시장을 빠져 나온지도 모른다. 그러나 벌써 늦은 오후이다.

1895년 베니스 비엔날레가 창설되고 이 땅에서도 100년뒤에 열렸으니 1백억원이나 되는 거금으로 꾸몄다고 하지만 많은 지탄은 면할 것으로 본다. 깨끗한 가을 날, 꽃 수레와 풍선들, 말숙하게 차린 사람들, 친절한 도우미들이 인상깊었다. 또 2년뒤에 광주를 찾을 것이다.





전북지역의 문화가를 찾아서

얼화랑	얼 畵廊 GALLERY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9	85-0323
정갤러리	정 갤러리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44 (고려상호신용금고 4층)	86-8114
서신갤러리	갤러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2-2 센터 B/D B1	255-1653
갤러리민촌	민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46-51	75-0695
고을화랑	갤러리 고을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38-3	84-0913
우진문화공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21	82-7227
예루	예루 GALLERY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22-5	231-7705
전북예술회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04-5	84-4445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70-2089, 2090
전주대학교 화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220-2667
오궁리 미술관			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45	(0673)43-7620
한마음갤러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8-9	220-1177
기린예원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7-9	231-7789

바쁘다,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지금 말 나온 김에 찾아 갈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전시중인 화랑이 있습니다.
전북의 문화의 밑거름은 몸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을 만들 것입니다.

엄기석
이철규
이환배

이우정
이승훈
정미현

[redacted]

편집후기

편집 체제와 디자인을 바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준 회원님과 옥고(玉稿)를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원장님께서 '큰 마음의 예술'을 주시고, 박선생님께서 '그림 속의 민족혼'을 입체원 주셔서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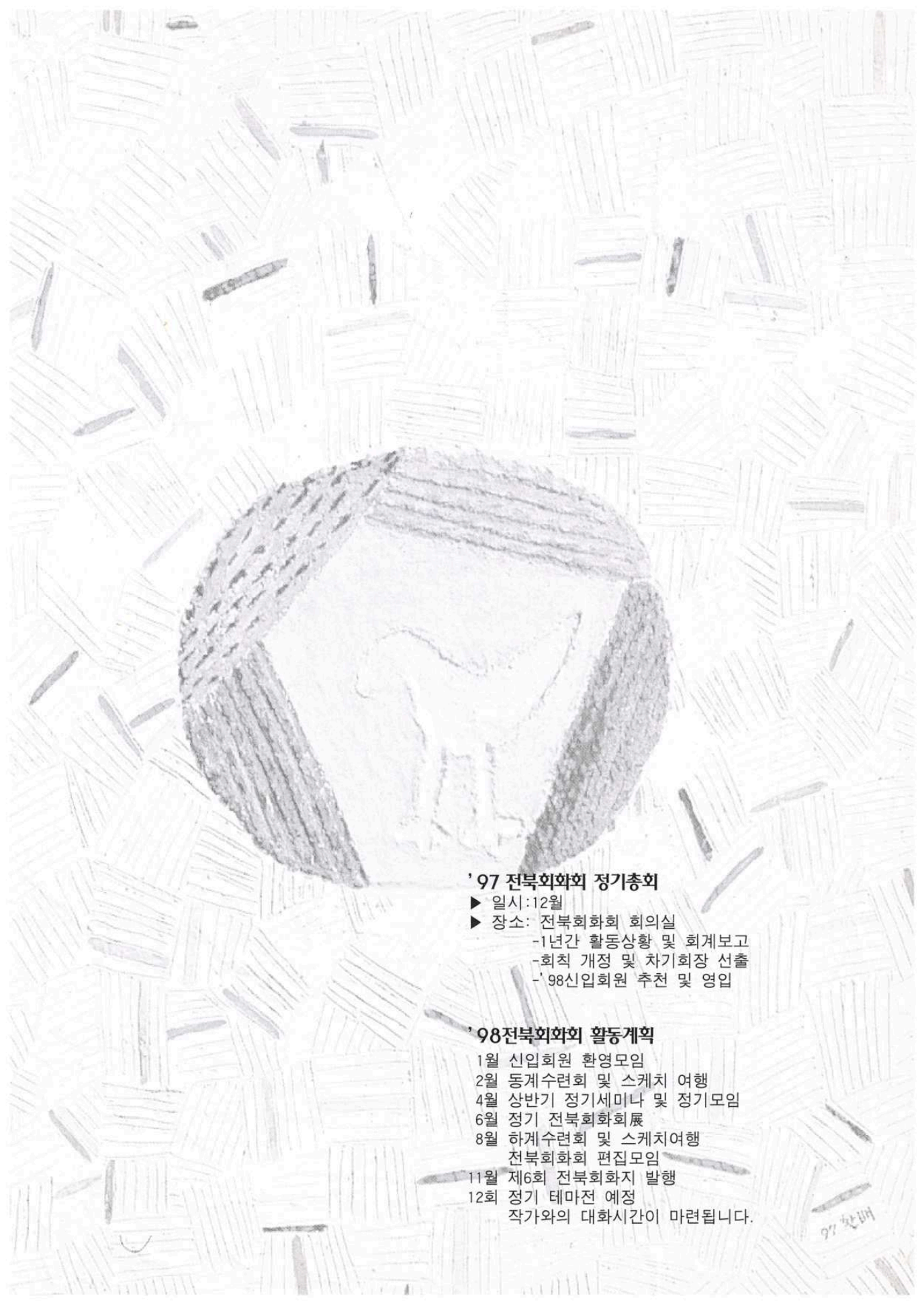
둔중함을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십시오.

단풍이 생활의 찌든 곳까지 찾아와 서글픈 시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움직하고 계승스레한 자신을 돌아 보게하는 산사, 혹은 작품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람 쐬러갑시다.

이 한 권의 책을 대할 때마다 계절에 맞는 그림을 골라 방안에 걸어두고 청심환을 피운 기분에 들어보시라.〈勳〉

발행 · 편집인 / 정미현
편 집 위 원 / 이환배 · 이승훈
전북미협회 1997년 통권 제5호
발 행 일 / 1997. 11. 28
대표인박 [redacted]
기획 · 제 작 / 도안칼라인쇄출판
T/F)063)253-1134

[redacted]



'97 전북회화회 정기총회

▶ 일시:12월
▶ 장소: 전북회화회 회의실
-1년간 활동상황 및 회계보고
-회칙 개정 및 차기회장 선출
-'98신입회원 추천 및 영입

'98전북회화회 활동계획

1월 신입회원 환영모임
2월 동계수련회 및 스케치 여행
4월 상반기 정기세미나 및 정기모임
6월 정기 전북회화회展
8월 하계수련회 및 스케치여행
전북회화회 편집모임
11월 제6회 전북회화지 발행
12회 정기 테마전 예정
작가와의 대화시간이 마련됩니다.

전북 회화

1997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음.